# 공창폐지 운동과 그 유산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과 『별들의 고향』

배 상 미\*

#### 요약

이 논문은 김말봉의 소설 『화려한 지옥』과 『별들의 고향』을 루이 알튀세르의 '징후적 읽기'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공창폐지운동과 그 유산의 재현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두 소설을 공창폐지 운동의 한계를 드러내고 한국사회에 사회주의 사상의 필요성을 논하는 텍스트로 독해하였다. 우선, 공창폐지 운동과 관련된 김말봉의 글들과 이 운동에 대한 기사들을 분석하여, 그녀가 공창폐지 운동에 어떤 의의를 부여해야 할지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그녀가 공창폐지 운동에 참여하던 시기에 이 운동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창작되었다고 알려진 『화려한 지옥』을 연구하여, 이 텍스트가 성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부재하고, 이들에 대한 낙인을 재생산하는 공창폐지 운동의 한계를 재현하였음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기에 창작된 『별들의 고향』을 공창폐지 운동의 후일담 소설로 독해하여, 표면적으로 전면화된 창열의 기독교 반공 애국지사로 성장하는 서사 뒤에 있는 사회주의 사상에 기반하여 성노동자들의 인권, 신분제 잔재 타파, 그리고 연대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독순과 영순의 서사를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미군과 냉전의 영향력 하에 발표된 문학 텍스트에 담겨진 헤게모니적 담론에 부합하지 않는 숨겨진 반항적 메시지를 밝혀내었다.

주제어: 김말봉, 공창폐지운동, 화려한 지옥, 별들의 고향, 징후적 읽기, 낙인, 사회주의. 후일담

<sup>\*</sup>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조교수(비정년)

목차

- 1. 들어가며
- 2. 공창폐지 운동에 대한 김말봉의 모순적인 태도: 공창폐지운 동 관련 논설
- 3. 성노동자들이 배제된 공창폐지 운동의 한계 폭로: 『화려한 지옥』
- 4. 공창폐지운동을 통해 남한 사회에 남겨진 사회주의의 유산: 『별들의 고향』
- 5. 결론

##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공창폐지 운동을 재현한 김말봉의 소설인 『화려한 지옥』과 그것의 후일담 격인 『별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두 소설에서 공창폐지운 동과 그 유산이 어떻게 재현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과 같은 지배계급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 는 김말봉의 소설이, 사회주의 사상에 공감하고 당시 한국 사회의 엘리트 들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논하겠다. 김말봉은 이미 잘 알려 져 있듯이 1946년 말부터 1948년 초까지 남한에서 '폐업공창구제연맹'1)의 위원장으로서 공창폐지와 공창의 여성들을 수용하는 기관인 '희망원'의 설립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인물이다. 김말봉은 1938년 12월 「밀림」의 연

<sup>1)</sup> 이 단체의 이름은 1946년 8월 결성 당시에는 '폐업공창구제연맹'으로 보도되었으나,(「폐업공창구제연맹을 결성」, 『동아일보』, 1946.08.11 등) 1947년 이후 이 단체를 언론에서 보도할 때에는 주로 '공창폐지연맹'으로 명명한다.(「매음계자의 처벌과 공창폐지건의, 공창폐지연맹입의에 제출」, 『동광신문』, 1947.3.30.등. 「공창폐지와 구제」(『조선일보』, 1947.03.26)라는 기사는 김말봉이 속한 단체를 '폐창연맹'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김말봉 역시 1947년에 자신의 소속을 '공창폐지연맹'이라 밝힌 바 있다.(「본보에 보내는 각계의 축사, 진정한 대변자 되라」, 『여성신문』, 1947.5.13.) 이 논문에서는 이 단체를 지칭할 때, 결성 직후의 시점을 일컬을 때는 '폐업공창구제연맹'으로, 그 이후에는 '공창폐지연맹'으로 표기하겠다.

재를 중단한 후부터 작품활동은 물론 다른 공적영역에서의 활동에 거의 나서지 않았지만,<sup>2)</sup> 해방 이후 1946년부터 작가로서 새로운 작품을 준비 한다는 소식을 전하고,<sup>3)</sup> 독립노동당의 여성부 대표로서 이름을 올리면서 점차 활동범위를 넓혀간다.<sup>4)</sup> 특히 1946년 8월 10일 독립노동당 여성국장 으로서 여러 여성단체와 사회단체의 여성부 대표들이 모여 조직한 '폐업 공창구제연맹'의 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부터, 그녀는 공창폐지와 관련된 글을 투고하거나 인터뷰를 하면서 작가로서만이 아니라 활동가로서 언론 에 종종 이름을 올린다.

그러나 김말봉이 공창폐지운동에 남다른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녀의 등단작인 「망명녀」(1932)나 첫 장편 연재 소설 『밀림』 (1935-38)에는 공창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기생으로 일하는 여성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소설을 비롯하여 그녀의 논설에서 공창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김말봉은 기독교계 초등학교를 거쳐, 일신여학교, 정신여학교, 그리고 도쿄에서 다녔던 쇼우에이(頌栄)여자고 등학교5)와 교토의 도시샤 여학교 전문학부(영어과)6)까지 모두 기독교계열 학교에서 공부했었다.7) 만약 그녀가 식민지시기에 공창폐지 운동에

<sup>2)</sup> 작가들의 근황을 보고한 기사 「문사 제씨와 여성 제씨의 근황」은 김말봉이 육아와 가사노동 으로 문학창작을 할 여력이 없다고 전하고 있다. (『삼천리』, 1940,10, 189-190면)

<sup>3)</sup> 이 당시에 연재 예정이라고 보도된 작품은 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1946년부터 그녀 가 문단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밤과 낮」을 집필」, 『동아일보』, 1946.3,21; 「여류작가 소식」, 『가정신문』, 1946.7,22)

<sup>4)</sup> 김말봉은 독립노동당이 설립될 때부터 부인부장으로서 활동한다. 그러나 김말봉이 공창폐지 운동에 참여한 것 이외에, 독립노동당 당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박정희,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주공화정의 형성과 변동 과정에서 독립노농당 아나키즘 연구 」,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59면)

<sup>5)</sup> 해당 학교의 창립 배경과 기독교와의 관련성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라. http://www.cc.aoyama.ac.jp/~soperprog/pdf/SoueiJoshigakuin.pdf

<sup>6)</sup> 김말봉이 해당 학교를 다니던 1920년대 중반에 영문과와 가정과는 전문학교 수준의 교육을 제 공하고 있었지만, 이 학교의 당시 명칭은 '도시샤 여학교'였다. 1930년이 되어서야 '도시샤 여 자 전문학교'로 개칭한다. (https://www.dwc.doshisha.ac.jp/about/history/chronology)

<sup>7)</sup> 이상 김말봉의 출신학교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서정자, 「김말봉의 『밀림』 재

관심이 있었거나 참여했다면, 1920-30년대에도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는 기독교계열 여성 활동가들의 주도 하에 공창폐지 운동<sup>8)</sup>이 진행되었으므로, 이것의 연속선상에서 해방기에 이루어진 자신의 공창폐지 운동 참여의 의의를 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일본에서나 식민지 조선에서 공창폐지 운동에 관여했다는 기록 등도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그녀 역시해방기의 공창폐지 운동의 의의를 식민지시기에 존재했던 폐창운동의 연속선상에 두지 않는다.

공창폐지에 대해 그녀의 문제의식이 깊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가 공창 폐지연맹의 대표로 활동하던 1946년과 1948년 2월 사이에 공창폐지의 필요성을 논하는 글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글들에서 공창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그녀의 논지들은 비논리적이고, 하나의 글 안에서도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김말봉의 글들은 그녀가 공창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독자적인 논리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공창폐지연맹은 군정장관 대리인 헬믹 대장이 1947년 10월 30일 '공창제폐지령 및 담화'를 발표한 후, 1947년 11월 14일 〈공창제도등 폐지령〉을 원안 그대로 발표하기 직전인》 1947년 11월 6일에 단체 해소 결의무을 공개한다.10》 김말봉은 단체 해소를 결의한 이후부터는

론: 아나키즘과 기독교정신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여성문학학회, 2020, 178-182면; 진선영, 「작가 연보」, 김말봉, 진선영 엮음, 『김말봉 전집 4: 가인이 시장/ 화려한 지옥』, 소명출판, 2015, 592-593면; 「생애와 작품 연보」,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411면. 서정자는 김말봉의 학교 선택을 미국북장로교와 그녀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연을 맺었던 어을빈 부인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sup>8)</sup> 일본에서의 소위 전간기(1919-1937년)의 폐창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후지메 유키, 김경자·윤경원 옮김, 『성의 역사학 근대국가는 성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삼인, 2004, 295-303면;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공창을 대상으로 1920년대와 1930년대를 걸쳐 일어났던 기독교계 폐창운동은 다음을 참고하라. 윤은순, 「일제 강점기 기독교계의 공창폐지 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2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177-207면.

<sup>9)</sup> 박유미, 「해방 후 공창제 폐지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역사와 실학』 41, 역사실학회, 2010, 52-54면.

<sup>10) 「</sup>공창폐지연맹에서 해소발전적(解消發展的)를[sic] 성명」, 『부인신보』, 1947.11.6.

공창폐지 운동은 물론이고 공창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직업 재교육 시설인 희망원에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sup>11)</sup> 다만, 그후 김말봉의 소설에서 공창폐지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녀가 공창폐지 연맹이 활동하던 시기인 1947년 7월에 연재를 시작했으나 한국전쟁시기에 그 서사가 완결된 『화려한 지옥』(1951)과 역시 한국전쟁시기에 출판된 『별들의 고향』(1953)이 그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김말봉이 공창폐지 운동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를 이끌었다고 확언하기어렵다.<sup>12)</sup>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걸쳐 연재 및 출간된 두 소설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수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대부분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연구들은 모두 김말봉이 당시 공창폐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

<sup>11)</sup> 김말봉은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희망원의 운영은 서울시가 담당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역 여인군의 푸로퓔 김말봉 씨 공창폐지연맹위원장」, 『경향신문』, 1948.3.7.) 그러나이 기관은 공창폐지 정책 실시 이후 전직 성노동자들을 성공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박유미, 앞의 글, 58-63면.;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 연구』 9, 역사학연구소, 2001, 228-239면.

<sup>12)</sup> 선행연구에서는 그녀가 폐업공창구제연맹의 위원장이 된 이유를 식민지시기의 근우회 활동 등에서 찾기도 하는데(김경연, '삐라를 든 여자들'의 냉전: 해방/전쟁기 여성작가 김말봉의 행로와 문화냉전의 젠더정치」, 『한민족문화연구』 68, 한민족문화학회, 2019, 183-184면), 앞서 식민지시기 김말봉의 행보와 해방기에 그녀가 식민지시기 자신의 활동과 공창폐지연맹의 활 동을 연결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독립노동당이 주도적으로 이 연맹을 조직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독립노동당의 외교부 장이었던 유엽은 폐업공창구제연맹의 창립식에서 축사를 담당했었다.(「폐업공창구제연맹을 결 성」, 앞의 글) 이 연맹에서 여성들의 정치세력화와 계몽에만 특히 주력하던 단체들, 예를 들면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회나 (조선)부녀총동맹도 이름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에 서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폐창을 조직의 주요 목표로 세우고 있지도 않던 독립노동당 이 이 조직의 창립 행사를 위한 사회와 조직의 위원장까지 담당한다는 것은 특기할만 하다. 독 립노동당과 공창구제연맹의 활동, 그리고 미군정과의 관계는 자세한 자료가 부재하여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1946년 당시 미군정이 주도적으로 실시한 좌우합작 등의 정책에 그다지 협조 적이지 않았던 독립노동당이(박정희, 위의 글, 324-328면), 공창폐지 운동에 적극 협조함으로 서 그들이 주력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미군정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목적 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하였으며, 두 편의 소설도 이 운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두 소설에 대한 연구들보다,13) 2010년 이후의 연구들이 이미 알려진 김말봉의 이념, 즉 무정부주의자였다는 것,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반공주의자였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이 두 소설을 분석하고 그 의의를 평가한다.14) 이러한 경향은 해방기를 문학가들이 정치를 우선시하고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빚었던 시기로 전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김말봉의 소설에 대한 연구들에서만이 아니라 해방기의 문학을 연구한 여타 성과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5) 그러나 과연 김말봉의 저술은 아무런 모순 없이 이러한 이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미 알려진 그녀의 해방기의 족적에 따라 그녀의 작품이 가진 성격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에 언급된 그녀의 이념을 드러내는 키워드들이 김말봉의 문학이 가진 성격

<sup>13) 2000</sup>년대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여성 연대(최지현, 「해방기 공창폐지운동과 여성 연대 (solidarity) 연구: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박선희, 「김말봉의 『佳人의 市場』 개작과 여성운동」, 『우리말 글』 54, 우리말글학회, 2012), 대중성(최미진, 「광복 후 공창폐지운동과 김말봉 소설의 대중성」, 『현대소설연구』 3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 멜로드라마적 특성(최미진·김정자, 「한국전쟁기 김말봉의 『별들의故鄉』 연구」, 『한국문학논총』 39, 한국문학회, 2005) 등 텍스트의 서사와 형식적 특성에 대해분석하였으나, 2010년대,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 그녀의 두 소설과 이념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된다.

<sup>14)</sup>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을 꼽을 수 있다. 이병순, 「김말봉의 장편소설 연구 -1945-1953년 까지 발표된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61, 한국사상문화학회, 2012; 진선영, 「한국전쟁기 김말봉 소설의 이데올로기 연구 -〈별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55, 겨레어문학회, 2015; 김경연, 앞의 글; 이민영, 「전후 여성 작가와 열전사회의 반공담론: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1953)과 임옥인의 『월남전후』(1956)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02, 국어국문학회, 2023; 조민형, 「김말봉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아나키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sup>15)</sup> 김윤식은 『해방공간의 문학사론』(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에서 해방기의 '문학사'를 문인들이 식민지시기 자신들의 친일 경험 청산과 양극화된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정치적 입지 찾기를 중 심으로 구성한다. 김윤식의 경우가 보여주듯, 김말봉 연구만이 아니라 해방기 문학 연구는 작 가를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이로 전제하고, 작품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분석해온 경향이 존재한다.

들을 포괄하기에 적절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창폐지운동과 관련된 김말봉의 문학과 글들을 다시 독해하기에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정후적 읽기(symptomatic reading)의 방법으로 김말봉의 소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후적 읽기란, 루이 알튀세르가 『자본을 읽는다(Reading Capital)』에 실은 「자본에서 마르크스의 철학으로(From Capital to Marx's Philosophy)」에서, 칼 마르크스가 고전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독해하는 방법론으로서 제시한 것이다. 알튀세르는 마르크스가 고전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연구하면서 이들이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 논의할수 없었던 것, 논의의 과정에서 빠져있는 것, 모순적인 것 등을 지적하고,이들의 논의에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논점을 만들어나간 것에 주목하면서, 마르크스의 이 같은 독법을 '징후적 읽기'라고 명명한다. 즉, 텍스트가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그 명시적인 것 뒤에 놓여있는 무의식과 그 무의식을 형성하는 구조를 밝히는 것이 바로이 징후적 읽기인 것이다.16)

정후적 읽기의 방법은 몇 년간 집필활동을 쉬었던 김말봉이 갑작스럽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던 시기에, 당대 사회 변화를 실시간으로 담아낸 소설들을 분석하기에 적절할 것이다. 김말봉은 이제까지 여러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대중소설가'였을지언정, 특정 정치적목적을 선전하거나 달성하기 위해 문학을 창작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공창폐지연맹에서 위원장 직을 맡게 되고, 임기 기간 중에 공창 폐지 운동을 소재로 삼는 소설을 연재하게 되자, 그녀의 소설이 정치적인목적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해방기와 한국전쟁기 김말봉의 텍스트가 놓인 맥락을 고려하면, 기록된 것 자체만을 분석하는 해석학적 접근보다는, 기록된 것들이 보여주는 결함, 모순, 결여들을 당시 역

<sup>16)</sup> Louis Althusser, "From Capital to Marx's Philosophy," Louis Althusser, Étienne Balibar, Roger Establet, Pierre Macherey and Jacques Rancière ed., Brewster and David Fernbach trans., Reading Capital: The Complete Edition, Verso, 2016, pp. 27-32.

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들을 고려하여 독해하는 접근은, 그녀의 직함에 한정되지 않는 다른 방식의 독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sup>17)</sup>

이 논문은 김말봉의 논설들과 에세이를 통해, 그녀가 공창폐지운동와 탈공창 여성 지원 사업에 대해 어떻게 논술하고 있는지 분석해보겠다. 이 글들에 나타난 김말봉의 공창폐지 및 탈공창 여성 지원 사업에 관한 그녀 의 모순적이고 애매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김말봉이 공창폐지에 강한 신 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선행연구의 전제에 도전하고, 김말봉의 문학에서 공창폐지란 무엇이었으며, 공창폐지를 경유하며 김말봉의 소설이 전달하 는 또 다른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연구해보겠다. 이를 통해 해방기와 한 국전쟁기에 발표된 김말봉의 소설을 그녀가 참여한 사회운동과 정부 관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그녀의 식민지시기 소설들과 의 관련성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 으로 『화려한 지옥』과 『별들의 고향』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이데올로 기 선전의 메시지가 드러난 소설이라기보다, 냉전체제가 고착화되어가던 시기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잠재된 무의식으로 새겨진 소설로 독해해보고 자 한다.

<sup>17)</sup> 박영준의 해방기 소설을 분석한 김영경은, 그가 해방기에 과거 만주에 체류했던 행적을 은폐하기 위해 애썼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텍스트의 배면의 의미까지 탐구하는 정후적 읽기 방법론이 그의 "위장과 기만의 전략"까지 고려하면서 독해하는데 유용하다고 주장한다. 김영경의주장처럼, 갑작스러운 사회적 및 역사적 전환이 발생한 해방기의 시점은 여러 작가들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곤경에 처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의 텍스트를 독해하는 방법으로서 징후적 읽기는 해방기의 텍스트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 유용할 수 있다.(김영경, 「해방기 사랑의 서사와 징후적 읽기」, 『한국언어문학』 123, 한국언어문학회, 2023, 156면)

# 2. 공창폐지 운동에 대한 김말봉의 모순적인 태도: 공창폐지운동 관련 논설

1938년의 『밀림』의 연재를 마지막으로 매체 등에 소식을 전하지 않던 김말봉은, 1946년 8월에 서울 내 14개 여성단체들이 연합하여 조직한 '폐 업공창구제연맹'의 위원장이 되었다는 기사를 통해 그녀의 근황을 알린다. 당시는 1946년 5월 17일 미군정의 러취 군정장관이 법령 제70호 〈부 녀자의 매매 혹은 그 매매계약의 금지〉를 공포한 후, 이 법령이 공창의완전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인신매매적 성거래 행위만을 금지한다고 밝혀, 완전한 공사창의 폐지를 주장하던 여성단체들 안에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었다. 18) 게다가 당시 공창폐지 찬성 측은 공창폐지를 반대하는 주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욕' 운운하는 반론들은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여성들이 성도동을 하게 만드는 빈곤과, 그리고 끊임없이 존재하는 매춘 수요의 문제를지적하여 공창폐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논의에 맞설 논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 공창폐지론에 반대한 대표적인 논자로는 오기영이 있다. 오기영은 미군정의 법령 70호가 발표된 직후에 「공창」(『신천지』, 1946.9)이라는 글에서 공창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빈곤, 실업이라는 사회적 구조의 측면에서 여성이 성노동에 종사하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19) 이는 그가 식민지시기에 식민지 조선인 지식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기생철폐론'에 반박하기 위해 발표한 그의 글 「매음제도론: 기생제도 철폐 제의견(諸意見)을 검토함」(『동광』, 1932.1)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결국 식민지시기에 이미 제기된, 성산업을 일소하거나 재편하기위해 고려해야 할 사회구조적인 모순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채 공창

<sup>18)</sup> 해당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동숙, 앞의 글, 215-220면을 참고하라.

<sup>19)</sup> 오기영, 「공창」, 『진짜 무궁화: 해방경성의 풍자와 기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2, 23-27면.

제도의 폐지만이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당시 미군이 일본에서 실시한, 공창제도를 폐지하여 자신들의 점령을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는 해방정책으로 보이려는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sup>20)</sup>

해방기 남한에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공창폐지에 반대하는 담론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군정만이 아니라 지식인들의 담론에서는 공창폐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담론이 우세하였다. 좌파와 우파 여성단체 모두 1927년 근우회를 결성할 당시처럼 성이 매매되는 현실을 일소해야할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미군정도 이에 협조적이었기에 공창폐지는 쉽게 주류적 담론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창폐지를 지지하는 논의들은 공창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공창폐지 후에 생계를 유지할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다. 결국 공창폐지는 앞서 언급한 대로미군정이 일본보다 여성의 인권 보장에 더 노력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도움이 되었을 뿐, 21) 공창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추후 취직과 생계는 적극적인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공창폐지연맹도 공창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생계가 논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의식하였다. 이들이 결성 초기부터 언급하던 '희망원'은 공창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또 다른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시설이었다.<sup>22)</sup> 이 연맹의 결성식에서는 희망원에서 제

<sup>20)</sup> 平井和子, 『日本占領とジェンダー:米軍・売買春と日本女性たち』, 有志舎, 2014, 45, 85-89 면. 일본에서 실시된 미군의 공창폐지 정책은 법령 70호와 유사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인신매매의 폐지와 인신매매된 자의 '빚'을 무효화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공창의 폐지와 인신매매의 금지만을 천명한 것으로, 매춘의 완전 폐지는 아니었다. 공창이 폐지된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한국의 경우처럼 집창촌과 매춘업이 계속 이어졌다.

<sup>21)</sup> 이상의 논의는 이나영, 「금지주의와 국가규제 성매매 제도의 착종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2007, 45-49면을 참고하였다.

<sup>22)</sup> 다음은 '폐업공창구제연맹'의 결성을 보도한 기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연맹의 취지이다. "사람만은 해방하였으나 유곽은 그대로 남아있고 농중을 나온 창녀들이 갈 곳이 없어 다시금 유곽의 시장으로 돌아가 지난 칠월 한 달 동안에 백이십 명의 창녀가 새로 늘은 사실에 비추어 이대로 있으면 여전히 공창은 존속될 것이니 이 소굴을 없애도록 먼저 장려갱생 운동을 일으켜야 하겠다고,"(「폐업공창구제연맹을 결성: 시내 십사 부인단체서 총궐기」, 『동아일

공할 직업재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밝혔다.<sup>23)</sup> 또한, "이 사업이 일시도 빨리 진전되기를 위하여 사업 내용을 하지 중장과 러취 장관에서 설명 진정하기로 결의"<sup>24)</sup>하였다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단체의 사업은 미군정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진행되었으며, 미군정의 지원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 희망원이 총 몇 개소가 있었고,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희망원에 입소하여 직업교육을 받은 이들이 그 후에 어떤 새로운 직중에 종사하게 되었는지 등과 관련된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sup>25)</sup> 김말봉 역시 1946년에 게재한 글들에서 자신이 현재 희망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희망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무슨 일을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희망원이 공창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직업과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만을 강조한다.

이는 김말봉과 공창폐지연맹이 공창과 그 폐지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의의를 부여해야 할지 잘 알지 못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공창폐지연맹의 김말봉은 공창이 폐지되고 일 년이 지난 1949년 중순까 지 공창과 이것의 폐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여러 매체에 게재하면서 공

보』, 1946.8.11.; 「"희망원", 갱생을 상징」, 『조선일보』, 1946.8.11)

<sup>23)</sup> 위 기사는 공창을 나온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알리고 있다. "우선 글을 가르키고(sic) 다음에 재봉, 요리법 등을 가르키여(sic) 직업을 알선하는 일반 의료 기관도 완비시켜 성병도 치료 건전한 결혼도 알선하게 되었다. 또 이 외에 동원의 사업으로는 24만원을 계상하야 양돈(養豚)을 경영(...) 원예부(園藝部)를 두어 원예 일반지식도 취입시키기로 되었다." (「폐업공창구제연맹을 결성: 시내 십사 부인단체서 총궐기」, 앞의 글)

<sup>24)</sup> 위의 글.

<sup>25) 「</sup>폐업공창구제연맹을 결성: 시내 십사 부인단체서 총궐기」(앞의 글)에 따르면 희망원을 "시내 3개소"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불행에 우는 여성에 온정」(『조선일보』, 1946.9.8)은 희망원은 남산정에 하나가 개설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다. 또한, 폐업공창구제연맹의 활동이 보도된이후, '희망원'이라는 명칭은 다른 지역에서도 전직 성노동자들의 직업훈련기관 혹은 이들을 '수용'하는 기관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폐업공창구제연맹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목포에서도 공창이 폐쇄된 후 해당 시설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희망원에 수용시켰다는 기사가 있다.(「57명을 희망원에, 목포유곽을 완전폐쇄」, 『신민일보』, 1948년 2월 21일)

창폐지가 성병을 일소하고, 새로운 섹슈얼리티 규범을 확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는다. 그러나 그녀의 글들은 하나의 글 안에서도, 그리고 각각의 글 사이에도 여러 모순들이 착종되어 있어, 김말봉이 자신의 운동이 가지는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순과 불명료성은 그녀가 공창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제시한 세 가지 주요 논지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창이 아닌 공창을 폐지해야하는 이유이며, 두 번째는 공창폐지로 인한성병 퇴치와 여성 인권 향상이며, 세 번째는 공창폐지로 달성될 수 있는 새로운 섹슈얼리티 규범이다.

우선, 김말봉은 공창의 폐지만을 강조하고, 사창의 폐지는 주장하지 않 는다. 그러나 이 사창에 대한 김말봉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김말봉이 공창폐지연맹에서 활동하던 초 기에는 1946년 5월 17일의 〈부녀자의 매매 혹은 그 매매계약의 금지〉법 령이 공창 그 자체를 폐지시키지 않아서 다시 여성들이 성노동을 한다는 것에 분개하고, 공창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과 존재하는 국가들 사이의 성병 발병 비율을 비교하면서, 공창이 여성 착취와 성병의 결정적인 원인 이라고 비파하다. 또한, 사창의 확산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활 동에 기대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여자의 취업 할 수 있는 직장이 많아지 고 임금이 적당하면 넉넉히 해소될 문제"라고 주장한다.26) 사창 확산이 통제 가능하다는 김말봉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의견 에 불과하다. 또한, 경찰의 단속으로 사창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성산업을 규제하는 법의 제정을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는 공창을 폐지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만을 외치고 글을 끝맺는다. 그러나 사창이 아닌 공창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말봉의 글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한다.

<sup>26)</sup> 김말봉, 「희망원의 사명」, 『부인』 1권 3호, 1946.10,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8: 해방기 단편서 사 모음』, 소명출판, 2018, 193-194면. 인용문은 194면.

「유곽의 존재는 사회적 죄악이냐?」는 글에서 그녀는 사창은 공창과 달리 성노동자가 구매자를 선택할 기회가 있어 공창처럼 인권침해가 심하지 않고, "국가의 산업이 발전되는 대로 대다수가 공장 사회 기타 상당한 직장으로 전환"할 것이므로, 공창이 폐지되면 사창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이 전망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사창이 공창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사창은 국가의 산업이 발전되는 대로 대다수가 공장 사회 기타 상당한 직장으로 전환될 것이니 사창 문제는 불원 그 해결이 올"27) 것이므로 공창폐지에 집중해야한다고 역설한다. 이번에는 사창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없이, 사창에서 이루어지는 성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리라는 그녀의 믿음을 근거로 공창폐지만이 성병과 여성착취의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주장과는 달리, 공창이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성병은 유행하였으며, 사창의 수는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였다. 26 공창이 폐지되고 일년 후, 김말봉은 이러한 상황을 의식하며 정부 차원에서 사창 종사자들에 대한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사창 종사자들을 교화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도록 이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다. 게다가 "건강한 사창은 하루바삐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또 의식(衣食)을 얻을 수 있는 직장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29)이라고 사창을 운영하는 이들이 사창 폐지에 협력할 것이라고 자임한다. 이러한 김말봉의 주장은, 오기영과 같은 논자들이 언급한 대로 공창의 폐지가 사창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성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주장에 대해 그녀가 결정적인 반박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김말봉은 공창 폐지로 성병퇴치와 공창에서 일하는 여성들

<sup>27)</sup> 이상 인용은 김말봉, 「유곽의 존재는 과연 사회적 죄악이냐?」, 『가정신문』, 1946.9.7.

<sup>28)</sup> 강혜경, 「제1공화국시기 매춘여성과 성병관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3, 한국민족운동사학 회, 2010, 263-266면.

<sup>29)</sup> 김말봉, 「공창폐지와 그 후의 대책」, 『민성』 10, 1949.10, 40면.

의 인권 향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하지만,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고 있다. 그녀는 성병의 매개원으로 공창의 성노동자를 지목한다. 이들이 매주 성병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검사와 검사 사이에 성병에 걸린 남성 구매자와 성관계를 하면, 다른 남성 구매자들에게 성병을 옮기게 되므로, 공창이 폐지되면 성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30) 하지만, 남성 구매자들이 공창의 성노동자들에게 성병을 옮기는 상황과, 이들 남성들의 성병 검사와 성병 예방을 위한 보다 철저한 피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말봉은 공창의 여성 인권 침해를 강조하기 위해 공창을 사회적 악이자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공간으로 묘사한다. 그녀의 글 안에서 공창은 성노동자들이 항시적으로 성병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포주의 강요를 받아 무분별하게 성구매자에게 성서비스를 팔아야하고, 임신하면 바로 낙태해야 하는 곳이다.<sup>31)</sup> 이러한 묘사는 여성들을 인권침해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매우 보기 드문 극한의 착취와 '일반적'이지 않은 섹슈얼리티 학대를 경험한 존재들로 주변화하는 효과도 낳는다. 반면, 성구매자는 이렇게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인권침해에 가담하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로 묘사한다. 심지어 "남성의 성욕 만족은 사창으로 넉넉하다"32)거나 "날마다 자라고 있는 내 아들 언제 어느 때 그들의 교소에 무서운 유혹을 느끼게 될는지 그들의 홍순에 부딪히는 순간 멸망"33)이라고도 한다. 김말봉의 글 안에서 남성 구매자들은 자연스러운 성욕을 가진 결백한 자들이고, 공창 존속의 책임은 이들을 유혹하는 공창과 공창의 성노동자들에게 있다.

이러한 김말봉의 논조는, 공창과 사창의 여성들에게 다른 직업에 종사

<sup>30)</sup> 김말봉, 「희망원의 사명」, 앞의 글; 김말봉, 「유곽의 존재는 사회적 죄악이냐?」, 『가정신문』, 1947.9.7.

<sup>31)</sup> 김말봉, 「유곽의 존재는 사회적 죄악이냐?」, 위의 글.

<sup>32)</sup> 위의 글.

<sup>33)</sup> 김말봉, 「공창폐지와 그 후의 대책」, 앞의 글, 39면.

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그녀의 확신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을 불러일으킨다. '선량한 남성'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사회 약'에 공모한 공창의 여성들이, 공창을 그만두면 바로 다른 직종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공창에서 일했던 여성들이 공유하는 공창의 성노동자였다는 과거가 일종의 낙인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김말봉이 공창폐지로서 달성할 새로운 섹슈얼리티 규범에서도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김말봉의 글 「미혼인 젊은 남녀들에게」(『부인』 2권 6호, 1947.9)에서 그녀는 성병의 유행을 지속시키는 성매매의 수요는 남편이 아내와의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는 성병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남성들의 성구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대신 '미혼'인 여성들에게만 미래의 남편에게 "수줍은 얼굴과 몸맵시에 유의"하여 "처녀미"34)를 잃지 말 것을 강조한다. 이는 마치 남성의 성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성들의 태도에 달렸으며, 남성들은이에 책임이 없다는 것처럼 독해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녀의 또 다른 글 「새 시대의 남녀 정조관」은 남녀 모두 정조를 중요시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성평등한 글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혼'인 사람들에게 미래의 결혼 상대에게 배우자를 위해 '정조'를 유지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결혼한 경험이 있는 싱글들이나 성노동 혹은 성폭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정조'를 상실한 것이며, 이들의 결혼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전제한다. 김말봉 역시 남편과 사별 후 재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했는지 "과거에 그가 과부였든 기생이었든 한 남자에게 완전한 사랑을 바치면 그 여인은 그 남자에게 있어 정부인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순결한 처녀는 순결한 총각만이 취할권리가 있고 홀애비는 과부에게 장가드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다"55)라며 성관계 여부에 따라 파트너 선택이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

<sup>34)</sup> 김말봉, 「미혼인 젊은 남녀들에게」, 『부인』 2권 6호, 1947.9,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8: 해방 기 단편서사 모음』, 소명출판, 2018, 157면.

수한다. 성관계 여부로 '정조'를 판단하고, '정조'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결혼상대를 판단하는 김말봉 식의 정조론은 역설적으로 성노동을 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성노동 이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전제한다. 또한, 김말봉도 재생산하고 있듯이 이들은 '정조'와 '순결'을 중시하는 섹슈얼리티 규범 안에서 제일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sup>36)</sup>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사창과 공창의 차이, 공창의 성노동자들, 그 리고 성 규범과 관련된 김말봉의 논의들은 글 안에서도 여러 모순들을 내 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김말봉은 당시 공창폐지연맹의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창폐지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글들을 다수 발표했던가? 왜 그녀의 글에는 이렇게 모순들이 내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는 이 운동이 단순히 김말봉과 그녀의 동지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 기관들, 특히 서울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말봉은 공창폐지 1년을 회상하는 글에서 공창폐지운동이 결국 사창의 증가로 귀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처음 이 운동이 발족하였을 때에는 미군정 하 여러 관계부처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으로 이 운동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또한, 이 운동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이 단체의 주 요 활동무대였던 서울시의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37) 즉, 공 창폐지운동은 김말봉과 그녀의 동지들이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없었고, 당시 미군정과 정부 기관들의 방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진행 되었던 것이다. 결국 김말봉의 공창폐지 운동과 관련된 글들도 이러한 정 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보기 어렵다. 공창의 성노동자에 대한 김말봉의 입장은 그녀가 공창폐지연맹 대표의

<sup>35)</sup> 김말봉, 「새 시대의 남녀 정조관」, 『부인』 3권 5호, 1948.12,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8: 해방 기 단편서사 모음』, 소명출판, 2018, 166면.

<sup>36)</sup> 게일 루빈은 사회에 섹슈얼리티 위계가 존재하며, 사회에서 규범적인 성으로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위계 안에서 가장 주변부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도식화하여 논하 였다. Gayle S. Rubin, "Thinking Sex," *Deviations*, Duke University Press, 2011, pp.151-154

<sup>37)</sup> 김말봉, 「공창폐지와 그 후의 대책」, 『민성』 10, 1949.10, 38면.

자격으로 발표한 글보다, 다음의 일화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김말봉이 공창폐지운동에 참여하던 당시, 신문기자로서 그녀와 교류한 적 있는 김선묵은 김말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김선묵은 공창제 도가 폐지되기 전, 서울시장의 주최로 공창폐지를 반대하는 측 및 찬성하 는 측을 중재하기 위해 열린 한 모임에 김말봉과 함께 참석했다고 한다. 이때 성노동자들도 공창폐지를 반대하는 측으로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이 국민의례 없이 논의를 시작하려 하자, 폐지를 찬성하는 측으로 참석한 김말봉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이 여자들도 이 땅의 딸이요 어머 니이거늘 왜 국민의례를 약하느냐, 국민이 아니란 말이냐"라고 분개했다고 한다.38) 이 사례에서 김말봉이 국민의례와 같은 국가주의적 형식을 중시 하고, 여성들을 '딸'이자 '아내'인, 이성애 가부장적 정상가족 구조 안에서만 호명했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성노동자들을 여타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하 는 차별적인 시선에 저항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 성노 동자들은 김말봉과는 다르게 공창폐지를 반대하는 측이었다. 김말봉의 논 설에 나타난 내용과 상반되어 보이는 이 같은 김말봉에 대한 회고는 어떻 게 이해해야 하는가? 김말봉의 논설과 그녀의 행적에서 나타나는 불일치 와 모순들은 김말봉의 다음의 두 편의 소설들에서도 나타난다. 이 두 소설 들을 '징후적 읽기'로 분석하면서, 김말봉의 문학에서 공창폐지 운동과 그 유산의 재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연구해보겠다.

# 3. 성노동자들이 배제된 공창폐지 운동의 한계 폭로: 『화려한 지옥』

『화려한 지옥』과 『별들의 고향』은 김말봉의 다른 장편소설에서도 나타 나는 3인칭 전지적 작기 시점, 사건 위주의 빠른 서사 전개, 복잡한 인물

<sup>38)</sup> 김선목, 「한국 여성 해방사에 빛나는 폐창민권운동」, 정하은 편,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 로서적, 1986, 184면.

들간의 관계라는 구성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 두 소설은 모두 주동 인물이 성병에 걸린 후, 공창폐지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서사가 진행되므로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이 운동에 관여하게 되는 계기가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이 두 소설의 서사와 공창의 관계는 사뭇 다르다. 또한, 흥미롭게도 이 소설은 공창폐지운동과 희망원의 운영이 결과적으로 공창제도를 폐지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처음에 목적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우선, 『화려한 지옥』의 경우부터 살펴보겠다.

『화려한 지옥』이 『별들의 고향』과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부인신보』에 1947년 7월 1일부터 1948년 5월 8일까지 연재되었다는 사실이다.<sup>39)</sup> 이로 인해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공창폐지와 관련된 기사들을 포함하여 당시 사회 및 문화적 영역의 변화들을 보도하는 기사들과 함께 전달되었다.<sup>40)</sup> 신문연재 소설이라는 특성과 소설의 주요 사건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이 소설은

<sup>39)</sup> 그러나 이 소설은 연재 중에 중단되고, 1948년에 작가가 스스로 완성한 판본을 출판을 위해 출판사에 송고했으나, 한국전쟁 등으로 인해 1951년에 드디어 단행본으로 출간된다.(김말봉, 『화려한 지옥』, 문연사, 1951, 페이지 없음) 이 소설이 연재될 당시에는 「카인의 시장」(몇몇 선행연구에서는 '가인(佳人)의 시장(市場)'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재 연재분을 찾아보면 모두 '카인의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부인신보』에서 김말봉의 소설의 연재를 예고하는 광고 중 제일 먼저 실렸던 광고에서 이소설의 제목을 '가인(佳人)의 시장(市場)'으로 소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장편소설연재, 김말봉씨 작 『佳人의 市場』」, 『부인신보』, 1947.6.12.)). 이 논문에서는 공창폐지운동에 대한 재현을 징후적 읽기의 방법론으로 독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창폐지와 관련된 내용이 더 보완된 단행본 『화려한 지옥』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겠다. 연재본과 단행본의 차이에 관해서는 박선희(앞의 글, 267-296면)의 논문을 참고하라.

<sup>40)</sup> 선행연구들 역시 이 소설의 서사와 구성이 당시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선희, 위의 글, 274-275면; 진선영, 「작품해설」, 앞의 책, 569-570면) 또한, 이소설이 연재된 『부인신보』역시 공창을 폐지해야하며, 여성들은 결혼관계 밖에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공창제도를 비판하는 기사 및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규제하려는 기사들을 여럿 게재하였다.(조영숙, 「해방 후 여성신문 연구: 『부인신보』(1947-1950)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50-55면)

당대 사회 변화와 호응하면서 진행된다. 이 소설은 당시 대부분의 공창폐지담론이 그러하듯, 도입부에서는 성병 확산을 이유로 공창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소설이 진행될수록 서사의핵심이 과거 기생이었던 채옥이 '탈공창'하여 공창폐지연맹의 조력을 받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옮겨간다.

이 소설에서 공창에서 일했던 채옥의 서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채옥이 왜 기생이 되었으며, 왜 몇 달 동안 교류하지 않던 황영빈의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는지와 같은 배경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녀가 일월루를 탈출했을 때, 그녀의 행적을 좇는 자에 의해 그녀의 고향이 북한에 있으며, 남편과 사별했다는 과거가 언급된다. (1) 월남민이자 남편을 사별한 그녀의 이력은 성산업에 여성들이 유입되는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배경을 논할 수 있는 사례가 될 만하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채옥 스스로 자신이 일월루에서 일하게 된 과정을 밝히지 않는다. 이 소설에서는 채옥만이 아니라 다른 공창의 성노동자들의 다양한 사정 역시 찾아볼 수없다. 대신, 지식인 여성의 입을 통해 그녀들은 동질적인 그룹으로 간주된다. 이 소설에서 공창폐지연맹의 위원장으로 등장하는 정민혜의 설교는 당시 대중들이 공창의 성노동자들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며, 공창폐지운동도 이러한 성노동자 혐오에 근거해 있음을 보여준다.

"유곽에 있는 창기들은 상류와 중류 사이의 생활…… 비교적 호화스러 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가봐요. 침대에 자고 이부자리도 여간 호사가 아 니고 먹는 것도 그렇지요. 자기 몸을 잡히고 있으니까 무어든지 부르는 대로 척척 대령이죠. 먹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

<sup>41)</sup> 한국전쟁 이후에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이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산업은 직업기술이 없고, 학력도 낮으며, 임금노동을 해본 이력이 없는 여성들이 비교적 쉽게 종사할 수 있었던 직종이었던 것이다.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 집, 2004, 145-146면)

"(…) 술, 담배, 군것질, 사나이들과 시시덕거리고 그리고 성병으로 앓고 사나이들에게 전염시키고 가끔 자살하고 도망을 하다가 잡히기도 하고……" (…)

"무슨 병이든지 만성이 되면 고치기는 더 힘이 들지마는 비교적 그 고통은 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창기들은 자기들의 생활에 익어져서별 고통도 느끼지 않고 잘 지내가는 것이 원통한 일이지요. (…)"42)

위 인용문에서 정민혜는 공창의 성노동자들을 불성실하고, 낭비하고, 전염병을 확신시키는 사회의 악처럼 묘사하는 동시에, 이들은 업소 안에서 자살하고 도주할 만큼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묘사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어서, "자기들의 생활에 익어져서 별 고통도 느끼지 않고 잘 지내가는 것"이라고 그녀들의 상태를 진단하는 모순을 보인다. 즉, 정민혜의 시각에서는 성노동자들의 자살과 도주도 '사회 약'인 그녀들의 성격을 보여주는 현상일 뿐, 그녀들이 자신들의 노동현장과 불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성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정민혜의 시각은, 이 소설에서 정민혜를 비롯한 다른 공창폐지연맹 활동가들이 전직 성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면, 이들의 상황과 요구를 살피는 대신, 지식인들이 파악한 공창의 실태에 근거한 계획을 진행해나가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사고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공창의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연맹원들의 판단에 따라 공창의 여성들을 계몽하려는 이 연맹의 방향은, 공창을 나온 전직 성노동자가다시 사창에 자기 자신을 인신매매하는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채옥은 자신을 도와준 공창폐지연맹원이 집을 잃을 상황에 놓이자, 그를 돕기 위해 추월루라는 사창에 5만원을 받고 자신을 성노동자로서 판다. 이는 다시 성노동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자 인신

<sup>42)</sup> 김말봉, 앞의 책, 127-128면.

매매<sup>43)</sup>에 참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옥은 자신의 행동을 "은혜의 만의 하나라도 갚아 보려는 저의 심정"<sup>44)</sup>으로 표현하고, 정민혜는 채옥의결정을 두고 "기특도 하지"라고 칭송한다. '탈공창'한 이가 금전적인 필요로 인해 인신매매를 통해 다시 사창으로 돌아가버리는, 공창 폐지가 성산업 및 성노동 근절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에서, 공창폐지연맹 위원장이 이를 자신들의 '실패'라거나 여성들이 성노동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성찰하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이 연맹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

이 소설은 초반부에서부터 공창폐지연맹의 목표를 "횡(横)으로는 유곽의 여인들을 인도(人道)적으로 구원하자는 것과 또 종(縱)으로는 민족 보건을 위하여 성병을 박멸하자는 민족의 보건운동"45)으로 소개한다. 이들은 사창은 성노동자들이 자기 관리를 더 열심히 하므로 성병의 근원지가 아니고, 여성들을 위한 직장이 늘어나면 사라질것이라 믿는다.46) 이들의목표는 성공적으로 희망원을 설립한 이후, 성노동자들에게 재봉, 축산 노동을 하게 하고 국어, 산수, 지리, 역사와 같은 기초 교육을 시켜서 "어느정도 계몽이 되면, 차례차례 한 가정의 주부로 들여보"47)내는 것이다. 결국 공창폐지연맹도, 희망원도, 궁극적으로 성노동을 하던 여성들이 다른노동에 종사하도록 '교육'시킨다기보다, 공창을 폐지하여 성병확산을 막고 공창을 나온 여성들 중 계몽된 여성들을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로 내보내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다.

<sup>43)</sup> 거액의 돈을 먼저 받고 한 개인의 자유를 구매자의 권한에 담보하는 상황은 인신매매나 다름없지만, 미군정은 앞서 언급한 법령 70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해당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선포하여, 인신매매적 성거래를 암묵적으로 용인하였다. 이는 사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양동숙, 앞의 글, 217-218면.

<sup>44)</sup> 김말봉, 앞의 책, 430면.

<sup>45)</sup> 김말봉, 위의 책, 132면.

<sup>46)</sup> 김말봉, 위의 책, 130, 132면.

<sup>47)</sup> 김말봉, 위의 책, 437면.

그러나 이 소설이 재현하는 공창에서 일했던 여성들에 대한 낙인은 이 여성들이 다른 직종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상대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채옥은 공창을 떠난 이후에도, 공창에서 일했던 그녀의 경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그녀의 정직성을 의심받고, 살인자로 몰리기도 한다. 이십여 년전에 기생을 그만둔 양비취도 여전히 기생이었던 과거로 인해 고통받는다. 48) 이러한 전직 기생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고려해보면, 희망원이 공창에서 일했던 여성들에게 '남편'을 찾아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채옥은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희망원 출신으로서 간호사로 재취직하고 동료 의사와 결혼하는데, 그녀는 희망원에 거주하던 다른 성노동자 출신 여성들이 아닌 연맹의 활동가들과만 교류하는 인물로, 희망원에 수용된 여성들 중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제시된다

이 소설에 나타난 공창폐지운동가들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독해하면, 이들이 공창의 성노동자을 인식하는 시각과, 공창을 나온 여성 들에게 제공하려는 교육의 목표는 모두 당사자들의 필요가 아니라, 이들 의 상황과 필요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활동가들의 의견에 기초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이 소설이 공창폐지운동과 이에 참여한 활 동가들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소설의 채옥이 공창을 나온 이후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스스로를 다시 사창에 인신매 매하고, 성노동을 그만둔 채옥과 왕비취가 성노동을 했다는 과거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현실은, 공창폐지가 성노동자들의 전직(轉職)과 복 지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방증한다.

이 논문은 『화려한 지옥』을 공창폐지연맹 활동가들의 시각이 아닌 공

<sup>48)</sup> 이것은 성노동했던 이들에 대한 낙인과 관련이 있다. 이 소설에서 전직 성노동자들을 향한 사회적 낙인에 관해서는 배상미,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통해 본 해방기 성노동자 재교육 운동의 한계: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 박계주의 ≪진리의 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318-328면을 참고하라.

창에서 일하는 혹은 일했던 성노동자들의 시각으로 독해하여, 이 소설에 나타나는 모순과 불일치들을 징후적 읽기로 분석해보았다. 김말봉은 이소설의 연재 예고에서 자신의 작품이 "조선 여인으로서 외치고 싶은 절실한 사회 비극의 한 토막"을 다루고 있으며, 또 독자들에게 "소설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호소와 탄원에 어떠한 답을 하시렵니까"<sup>49)</sup>라며 자신의 작품에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 이 예고문은 김말봉이 정확히 어떤 대상을 소설화하는 것인지, 그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는 무엇인지 상당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있다. "절실한 사회 비극"은 공창이 폐지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인지, 혹은 공창의 성노동자들의 현재 상황인지, 소설 속의 "비명과 호소와 탄원" 역시 공창폐지운동는 활동가들의 것인지, 혹은 성노동자들의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작가인 김말봉 역시 이 소설의 내용이 당시 정치적 상황과 긴밀하게 호응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독해될 가능성이 충분한 텍스트임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 4. 공창폐지운동을 통해 남한 사회에 남겨진 사회주의의 유산: 『별들의 고향』

『별들의 고향』은 『화려한 지옥』과는 달리, 공창폐지 이후에 공창폐지 운동에 일정부분 관여했던 인물들의 행보가 중심이 되는 소설로, 일종의 '후일담' 소설의 성격을 보인다. 이 소설에서 공창폐지운동에 참여했던 두 주동인물들은 각각 다른 경로를 밟아나간다. 남성 주동인물 창열은 이 운동을 기반으로 기독교 우파로 성장하고, 여성 주동인물 송난은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여러 수난에 휘말린다. 소설

<sup>49) 「</sup>예고, 오는 7월 1일부터 장편소설연재, 김말봉씨 작 『카인의 市場』」, 『부인신보』, 1947.6.26.

속에서 공창폐지운동의 수사들은 창열에 의해 반공주의적으로, 송난에 의해 사회주의적으로 이용된다. 전자가 한국에서 기득권으로 자리잡아가면서, 후자가 공창폐지운동을 경유하여 지지했던 사회주의적인 가치들은 배제된 채 한국 사회는 형성되어가는 듯하다.

이 소설의 초반부에서 공창폐지는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등장한다. 50) 좌파 송난과 우파 창열이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장소 역시 공창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강연회였다. 그러나 입법의회에서 공창폐지가 결정되는 시점에, 창열은 공창이나성산업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접고, 송난과도 멀어진다. 이후 그는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그와 약혼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 영숙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다. 이 시기에 그가 사회를 맡은 반공주의를 기치로 삼은 한 웅변대회에서, 한 연사가 기생을 비하하는 수사들을 이용하여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조롱한다. 송난은 기생 비하에 동조하는 창열을보고 분노하며 그와의 일체의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다. 함께 공창폐지에연대했던 두 사람이 공창폐지의 유산을 다르게 전유하는 상황은, 창열과송난이 각각 유명한 양반 가문의 기독교계열 우파와, 양반가문 남성의 기생 철의 딸 출신인 좌파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두 남녀 주동인물은 가족적 배경만이 아니라, 이념적 지향과 공창폐지운동에 접근하는 방법 역시 다르다. 유명한 양반가문인 창열은 대학생이고, 기독교인이며, '민족'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중시하지만, 송난은 북한과 연결된 좌파 계열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며 "착취계급을 향하여 공동투쟁"51)을 중시한다. 공창폐지운동에 참여하는 계기도, 창열은 성병 감염 경험과 그가 공창에서 성관계했던 기생의 자살이었지만, 송난은 기생차

<sup>50)</sup> 폐업공창구제연맹을 처음 결성할 당시에는 조선부녀총동맹과 같은 좌파 여성단체로 함께 참 여했었다. 소설 속 두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공창폐지운동 당시 우파만이 아니라 좌파도 함 께 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sup>51)</sup> 김말봉, 『별들의 고향』, 정음사, 1953, 58면.

별과 계급차별에 반대하여 스스로가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시민이 되려는 것이었다. 이처럼 두 사람이 공창폐지에 접근하는 시각과 목적의 차이는 공창이 폐지된 후에 성노동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원인이 된다.

앞서 언급한 『별들의 고향』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 소설이 사회주의를 악으로, 반공주의를 선으로 설정하여, 반공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은 주로 창열의 서사에 주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그러나 송난의 서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한사회에 상존해있는 적서차별, 자본주의의 폐해, 그리고 사회주의의 대타항으로 등장한 추상적인 '자유'론을 언급하며, 남한사회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공창제도가 폐지된 후에 성노동자를 비하하는 수사를 이용해 김일성을 비판하는 강연회에 대한 창열과 송난의 서로 다른 반응은 공창폐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하게 만든다. 아래는 창열이 속해있는 웅변부가 주최하는 웅변대회에서 '강도와 매춘부'라는 제목으로 큰 호응을 받은 강연의 일부이다.

"김일성이라는 기생이 스탈린과 붙어서 사생아 북한 괴뢰정부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보다 더 우리 역사를 더럽힌 일이 있었습니까?"(...)

"갈보와 기생처럼 스탈린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

"본래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나 딸은 적자(嫡子)가 잇는 이상 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을 자격도 없고 정식으로 사당에 제사 참석도 못하는 법이요."52)

이 소설은 위 강연 내용과 같이 우익들의 반공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수사로 성노동자 혐오와 성차별, 그리고 이미 철폐된 과거의 신분제 유산을 전면화한다. 이는 우파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가 앞서 언급한 차별과 혐오를 일소할 의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sup>52)</sup> 김말봉, 위의 책, 158-159면.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파들과는 달리, 송난이 공감하는 좌파들의 논의에서는 신분차별과 성차별, 그리고 성노동자 혐오에 대한 반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체의 여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몸을 팔고 있는 것이다. 기생이나 공창은 시간적으로 몸을 파는 것이요 소위 양가의 주부는 종신토록 파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생이나 공창은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왜냐하면 기생이나 공창은 정식으로 남의 아내 될 자격이 박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들 매춘부를 학대와 착취를 받는 계급으로 간주하고 우리와 꼭 같이 착취계급을 향하여 공동투쟁할 맹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오."53)

피덕칠은 두 손을 모으고 대답하였으나 빨갱이가 어째서 나쁜 것인지는 또 잘 모르는 것이다. 피덕칠이가 알고 있는 빨갱이라면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고 나랏일을 근심하고 민족……특별히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들을 왜 빨갱이 빨갱이 하면서 싫어하는 것인지 그까닭을 알지 못하는 피덕칠이다. 54)

위 인용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소설에서 좌파들은 사회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성노동자를 포함한 전근대의 신분제 위계서열에서 차별받았던 자들과, 노동 계급처럼 권리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한다. 우파들이 신분제의 유산과 성노동자 차별에 무비판적인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소설에서 무산계급들이 좌파들에 매혹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좌익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성욕 충족에 몰두할 뿐, 남한 사회에서 성평등과 신분 차별 철

<sup>53)</sup> 김말봉, 위의 책, 58면.

<sup>54)</sup> 김말봉, 위의 책, 262면.

폐와 같은 그들의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잠시 역사적 배경을 상기하자면, 한국전쟁 발발 이후를 제외하고,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47년 말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남한에서는 사회주의와 관련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55) 소설 속에서 좌파들이 돈과 섹스에 탐닉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식민지시기 소설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회주의자들을 비난하기 위한 전형적인 재현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56) 동시에 좌파들이 사회주의적 이념에 근거한 공개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당시 남한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독해할 수 있다.

『별들의 고향』은 『화려한 지옥』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계급에 따라만나는 미군들의 인종을 다르게 설정한다. 성노동자들이 만날 수 있는 미군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57) 그 당시 한국 여성들의 성 서비스를 구매한 미군들은 인종을 망라했지만,58) 코카시안 미국인들의 존재는 재현하지 않음으로서, 마치 기지촌 근처의 성산업의 책임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예를 들면, 『화려한 지옥』의 채옥이 일월루를 탈출했을 당시 거리를 헤매고 있던 그녀를 납치한 미군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병사이고, 『별들의 고향』의 득순이 성 서비스를 판매하는 미군들 역시 모두 아프리카계이다. 그러나 지식인 여성들과 교류하는 미군

<sup>55)</sup> 정호기, 「국가의 형성과 광장의 정치- 미군정기의 대중동원과 집합행동, 『사회와 역사』 77, 한국사회사학회, 2008, 164-168면.

<sup>56)</sup> 대표적으로는 이광수의 「혁명가의 아내」(1930)를 꼽을 수 있다. 이 소설의 여성 사회주의자 표상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도 알려진 일부일처제와 가부장적 이성에 관계에 문제를 제기 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연애론에 근거하고 있다. 콜론타이의 주장은, 이광수의 경우와도 같 이 사회주의자들을 성욕만을 추구하는 인물들로 조롱하기 위해 왜곡되어 이용되기도 했다.

<sup>57)</sup> 두 소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병사를 명명할 때에만 "흑인"이라고 인종을 명시한다.

<sup>58)</sup> 이임하, 『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철수와영희, 2015, 296-301면. 「카인의 시장」이 연재된 시점이 미군정이 통치하던 시기이고, 『별들의 고향』이 간행된 시점이 한국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던 시점(1953년 6월)임을 상기해보면, 원칙적으로 불법인 성구매를 하는 미군을 재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계 미군인들의 성구매를 재현했다는 점은 당시의 인종차별을 상기하게 한다.

들의 경우는 다르다. 『화려한 지옥』의 정민혜는 공창폐지연맹의 활동에 거액을 투자받을 때, 미군 G대좌를 초청하는데, 이 G대좌의 인종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서 그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아님을 암시한다. 『별들의 고향』의 송난이 한국전쟁기에 부산에서 함께 있던 미군 병사도 코카시안으로 묘사된다.

이 소설은 미군들을 상대하는 성산업이 공창이 폐지된 이후에도 버젓 이 성행하는 상황을 통해 공창폐지운동이 이것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는 한계를 노출한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해보면, 이는 성산업에 종사하 는 여성들에 대한 낙인을 고려하여 그녀들의 생계를 고민하지 않았던 공 창폐지운동이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공창에 서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공창이 폐 지되자 여러 문제들이 쏟아져나왔다. 특히 다른 직종의 고용주들은 공창 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여성들을 고용하는 것을 기피했고, 정부는 공창 에서 일했던 여성들에게 적절한 직업교육이나 다른 직종을 알선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창에서 일했던 여성들은 결국 다시 성산업으로 흘러 들 어가게 되었다.59) 두 소설에서도 나타나듯, 한국에서는 공창폐지 운동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군들을 상대하는 사창들은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으 므로, 공창 폐지가 미군까지 소비자로 삼아 확대되고 있는 성산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창폐지운동의 한계를, 이 소설 은 남북 단독정부 수립 이후 한국전쟁기의 시점에서 공창폐지운동에 관 여했던 좌익과 우익 측의 변화를 통해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서 놓치면 안 될 인물은 영숙과 득순이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영숙은 한국전쟁 이전에 송난이 표상하던 평등과 존중의 가치를 수호하는 이로 등장한다. 영숙은 득칠을 "피 선생"이라고 부르는 등 득칠에게는 하십시오체, 득순에게는 해요체를 사용하면서 시종일관 둘을

<sup>59)</sup> 양동숙, 앞의 글, 230-234면. 이 논문은 이러한 무책임한 공창폐지 정책에 맞서 공창의 성노 동자들이 쟁의를 조직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존중하는 태도를 표한다. 반면, 창열은 그들에게 하게체를 사용하면서 하대한다. 둘 모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평등'과 '존중'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창열과 대비되는 영숙의 태도는 위의 사회주의자들처럼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급진적인 목적은 없지만,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근대적인 평등의 가치관은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영숙의 성품은 창열의동생 창민이 동경하는 소련의 인간상과 닮아있다. 창민은 부정부패하고사치스럽고 동지애가 결여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이와 반대의 인간상으로 소련 사회의 사람들을 제시한다.(60) 이 소설은 영숙을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 창열과는 달리 소련의 사회주의자들의 성격과 닮아있고, 이러한 특성 덕분에 주변인들의 신뢰를 얻는 인물로 재현하여, 반공주의의 검열을 피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유산을 기록해나간다.

미군들을 상대하는 성노동자였던 득순을 통해서도, 이 소설이 사회주의의 유산을 기록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군을 상대하는 성노동자들은 공창폐지 운동 안에서도 소외되었고, 인종차별과제노포비아로 인해 내국인을 상대하는 성노동자들로부터도 경멸을 받는다. 성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주변부에 놓인 성노동자이지만, 득순은 억압받는 피해자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주변인들의 성향과 사회 정세를 분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달러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재력과, 전쟁 동안미군기지 주변에서 일하며 얻은 자신의 안정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창열과 영숙 등에게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득순은 자신을 성노동자와는 다른특수한 존재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녀가 성노동을 그만두게 된 계기는동료 성노동자인 장미가 미군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인데,이때 그녀는 미군의 만행과 그 미군이 처벌받지 않는 부조리한 상황에 분

<sup>60)</sup> 김말봉, 앞의 책, 258-259면.

노하고, 장미를 동정한다. 이렇듯 이 소설은 득순을 경제적 능력은 물론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지식인들의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동료가 경험하는 부당한 일에 분개할 줄 아는 인물로 제시한다. 또한, 득순은 어떤 지식인들의 '계몽' 없이 자신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성노동이 아닌다른 직업에 도전하는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소설은 전직 성노동자이자 노동계급인 득순이 평등 이념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공적 영역에서 대표하는 인물로서 성장할 것이라는 암시를 소설의 말미에 남김으로서, 그녀를 남한 사회에서 사회주의 유산을 실천할 인물로서 그린다.

이 소설은 공창폐지운동의 후일담적 성격을 가지고, 사회주의의 수사를 가져와 공창폐지 운동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성노동자들에 대한 낙인, 그리고 이 낙인과 교차하는 신분제 잔재에 대해 비판하고, 이 소설의 이상적인 인물상을 소련의 이상적 인물상과 유사하게 묘사한다. 이는 이소설이 사회주의가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에도 시사점을 주는 사상이라고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창열이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창민에게 기독교인과 기독교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사회주의자들은 실천하지 않을지라도, 사회주의는 성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계급 차별 철폐에 중요한 지적 자원을 제공하는 사상으로 남겨둔다. 특히, 해방 이전의 김말봉 소설과의 연속선상에서 이 소설을 이해한다면 사회주의가 성노동자들의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유용한 사상으로 제시되는 것은 낯설지 않다.

김말봉의 식민지시기 소설에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사회주의에 동조하면서 사회 비판적인 의식을 키워나가는 소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밀림』에서는 기생 죽엽이 일부일처제와 정조관념에 근거하여 기생의 노동과 존재를 차별하는 논리를 마르크스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계약과 혼인의 성격을 근거로 반박한다.<sup>61)</sup> 「망명녀」는 주동인물 순애가 기생으로 일할 당시 그녀의 성서비스 구매자로부터 폭

언과 함께 구타당하고, 부상당한 그녀를 영업 손실로만 바라보는 포주 밑에서 일했던 경험을 노동착취로 묘사한다. 나아가 그녀를 사회주의를 학습함에 따라 기생이었던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대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운동가로 거듭나는 인물로 그려낸다.<sup>(2)</sup> 이처럼, 김말봉의 식민지시기의 소설들은 성산업에 대해서도 폐지주의(abolitionism)의 입장 대신, 종사자인 여성들의 입장을 더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구조를 넘어서는 해방의 주체로서 나아가는 과정에 사회주의가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sup>

이러한 식민지시기의 김말봉의 성노동자 재현을 참고해보았을 때, 김 말봉이 공창폐지 운동에 참여하던 시기에 간행한 논설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노동자들을 혐오하는 언설들이나, 이후 해방기와 한국전쟁기 소설 들에 나타난 성노동자들에 대한 재현을 그 시대의 맥락에서만 읽는다면, 해당 텍스트들이 김말봉의 문학세계에서 가지는 맥락을 간과할 수도 있

<sup>61)</sup> 죽엽은 그녀가 기생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연인과 결혼할 수 없다는 상만의 주장에 대해, "여학생은 처녀니까 깨끗하니까 형순의 아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죽엽은 기생이니까 돈에 팔리는 몸뚱이니까 더럽다는 거죠? 돈에 팔리는 건 기생만이 아닌가 봐요. 여학생일수록 돈 있는 신랑을 고르는 모양이던데요?" "돈에 팔리는 건 기생만도 아니고 여학생만두 아니구 사내들도 곧 잘!sicl 팔리던데요? 오 선생님! 당신도 보아하니 매월 백 원 내외 월급에 팔린 듯싶은데……내 말이 틀렸세요?"(김말봉,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2: 밀림 (하)』, 소명출판, 2014, 496면)라고 반박한다. 이에 맞서 상만이 자신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지만 죽엽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자, 죽엽은 다시 "그래 웃음을 웃고 노래를 하고 때로는 몸뚱이를 바치는 것은 노동이 아니란 말씀야요? (...) 세상 가장 고된 노동이 뭐냐 하면 기생의 노동이라는 것쯤은 아셔야"(위의 책, 497면)한다고 반박한다. 죽엽은 자신의 노동 역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속에 있으며 그녀의 노동이 '노동'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한다.

<sup>62) 「</sup>망명녀」의 기생 출신 순애가 사회주의적 사회운동가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분석과, 김말봉의 식민지시기 문학과 그녀의 사회적 활동의 관계에 관해서는 배상미, 『혁명적 여성들: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젠더, 노동,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19, 41-53면을 참고하라.

<sup>63) 『</sup>밀림』에서는 주동인물인 의사 동엽과 자본가의 딸이자 훗날 의사가 되는 자경 역시 사회주의 논리와 노동운동에 감화되어, 노동자들 및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이들에게 사회주의의 의미는 기생인 죽엽의 경우와 동일하지 않지만, 사회주의를 평등과 사회 변혁의 사상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다. 또한, 해방기와 한국전쟁 시기는 정치적 부침이 심했고, 정부에 의한 검열만이 아니라 한 작가가 주변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내적 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징후적 읽기로 김말봉의 두 소설을 분석하면, 이들을 식민지시기 그녀의 창작과의 연장선상에서 재독하면서 사회주의적 유산을 재발견할 수 있다.

### 5. 결론

이 논문은 김말봉의 『화려한 지옥』과 『별들의 고향』에 나타난 공창폐지운동과 그 유산의 재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김말봉의 소설들을 공창폐지를 홍보하고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텍스트가 아닌, 공창폐지 운동의 한계를 드러내고 사회주의 사상의 필요성을 논하는 텍스트로 독해해내었다. 이 두 텍스트를 단순히 표면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텍스트 사이의 모순과 결여,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독해하기 위해, 루이 알튀세르가 칼 마르크스의 『자본』을 독해하기 위해 제안한 '징후적 읽기'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우선, 김말봉이 공창폐지 운동에 어떻게 참여하였는지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1946년과 1948년 사이에 김말봉이 쓴, 혹은 그녀의 공창폐지 운동에 관한 기사와 논설들을 살펴보았다. 이 글들에서 김말봉은 '폐업공창구제연맹'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공창폐지운동에 참여하였지만, 이 운동에 명확한 입장을 고수하거나 분명한 사회적 의의를 내세우지 못했다. 또한 김말봉과 이 연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창을 나온 여성들을 재교육하는 기관인 '희망원'도 그 실체가 모호하였다. 이는 김말봉이 공창폐지운동에 일관적이고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화려한 지옥』은 김말봉이 공창폐지연맹의 위원장이던 1947년 7월부터

공창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1948년 5월까지 연재된다. 공창폐지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과 공창을 나온 여성을 중심으로 서사가 구성되는 이 소설은 공창폐지 운동과 관련된 실제 사회적 및 정치적 상황을 반영해나가면서 운동의 진행과정을 재현하였다. 그러나 성병 폐지와 공창의 성노동자 계몽을 목적으로 한 소설 속의 운동을 주도하는 인물들은, 공창의 성노동자들을 비하하고, 그녀들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자신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계몽'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이 소설은 공창을 나온 성노동자들에게 따라다니는 '전직 성노동자'라는 낙인이 그녀들의 새로운 구직활동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도 재현한다. 결과적으로 이 소설에서 공창폐지운동의 활동가들이 달성한 것은 공창폐지일 뿐, 성노동자들을 계몽했는지도 알 수 없고 성병 일소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별들의 고향』은 1947년 말부터 1950년까지를 배경으로, 공창폐지 운동은 물론 이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변화도 재현한 일종의 후일담 소설이다. 한편으로 이 소설은 창열이라는 우익 남성이 반공주의, 기독교, 그리고 국가 발전에 대한 신념을 강화해나가는 국가주의적이고 보수적인서사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소설은 공창폐지 운동에 참여했던 창열과 그의 동료들이 반공주의 홍보를 이유로 성노동자에대한 혐오와 조롱을 재생산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성노동자들의 존재를도외시하고, 신분제의 잔재에 무비판적인 모습을 통해 그의 모순적인 측면도 재현한다. 또한, 사회주의적 지적 유산들은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신분제 잔재의 타파를 외치며, 이타적인 인간관계를 도모할 수있는 자원으로 제시된다. 이 소설은 공창폐지 운동에 가담했던 우파들의기만적인 측면을 고발하고, 사회주의 사상이 이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재현하여, 사회주의를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만한 지적 자원으로서 제시한다.

김말봉은 식민지시기부터 1960년대 초에 이르는 한국사회의 격변기에, 가장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영향받기 쉬운 신문이라는 매체에 꾸준 히 소설을 연재해왔다. 또한, 식민지시기에는 신문기자로, 해방 후에는 문단만이 아니라 정계와 기독교계의 저명인사로 활동했던 이력으로 인해, 지식인, 기독교인, 반공주의자와 같은 배경들이 그녀의 문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동원되기 쉬웠다. 그러나 김말봉이 식민지시기에 사회주의를 평등의 확산과 사회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는 사상으로 재현하였던 것과, 해방기와 한국전쟁기에 그녀의 소설이 발표되었던 지면의 성격, 시기의특성, 그리고 당시 여전히 대표적인 대중소설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던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와 호응하는 메시지만을 그녀의 텍스트가 가진 전부라고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0년 대 이후 점차 활발해지는 김말봉 문학의 연구들이 그녀의 텍스트가 가진 다양한 의미들을 밝혀내고 있는 지금, 앞으로 해방 이후 그녀의 텍스트를 식민지시기의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어떤 연속성과 차이가 있는지 당대문학 창작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다층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가정신문』, 『경향신문』, 『동광신문』, 『동아일보』, 『민성』, 『부인신보』, 『삼천리』, 『신민일보』, 『여성신문』(1947), 『조선일보』

김말봉, 『별들의 고향』, 정음사, 1953.

김말봉, 『화려한 지옥』, 문연사, 1951.

김말봉,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2: 밀림 (상)』, 소명출판, 2014.

김말봉,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2: 밀림 (하)』, 소명출판, 2014.

김말봉, 진선영 편, 『김말봉 전집8: 해방기 단편서사 모음』, 소명출판, 2018.

#### 2. 단행본

김유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배상미, 『혁명적 여성들: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젠더, 노동, 섹슈얼리티』, 소명출판, 2019

오기영, 『진짜 무궁화: 해방경성의 풍자와 기개』,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2.

이임하, 『해방공간, 일상을 바꾼 여성들의 역사』, 철수와영희, 2015.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후지메 유키, 김경자·윤경원 옮김, 『성의 역사학: 근대국가는 성을 어떻게 관리하는 가』, 삼인, 2004

平井和子、『日本占領とジェンダー:米軍 売買春と日本女性たち』、有志舎、2014

Gayle S. Rubin, Deviations, Duke University Press, 2011.

Louis Althusser, Étienne Balibar, Roger Establet, Pierre Macherey and Jacques Rancière ed., Brewster and David Fernbach trans., *Reading Capital: The Complete Edition*, Verso, 2016.

#### 3. 논문

- 강혜경, 「제1공화국시기 매춘여성과 성병관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3, 한국민족 운동사학회, 2010, 257-296면.
- 김경연, 「'삐라를 든 여자들'의 냉전: 해방/전쟁기 여성작가 김말봉의 행로와 문화냉전 의 제더정치」, 『한민족문화연구』 68, 한민족문화학회, 2019, 165-224면

- 김영경, 「해방기 사랑의 서사와 징후적 읽기」, 『한국언어문학』 123, 한국언어문학회, 2023, 155-181면.
- 박유미, 「해방 후 공창제 폐지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역사와 실학』 41, 역사실학 회, 2010, 37-71면.
- 박정희,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주공화정의 형성과 변동 과정에서 독립노농당 아나키 즉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배상미, 「성노동자에 대한 낙인을 통해 본 해방기 성노동자 재교육 운동의 한계: 김말 봉의 ≪화려한 지옥≫, 박계주의 ≪진리의 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5,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301-336면.
- 서정자, 「김말봉의 『밀림』 재론: 아나키즘과 기독교정신 구현방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9, 여성문학학회, 2020, 172-208면.
-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 연구』 9, 역사학연구소, 2001, 207-244면.
- 윤은순, 「일제 강점기 기독교계의 공창폐지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26, 한국기독 교역사연구소, 2007, 177-207면.
- 이나영, 「금지주의와 국가규제 성매매 제도의 착종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2007, 39-76면
- 정호기, 「국가의 형성과 광장의 정치-미군정기의 대중동원과 집합행동」, 『사회와 역사』 77, 한국사회사학회, 2008, 155-190면.
- 조영숙, 「해방 후 여성신문 연구: 『부인신보』(1947-1950)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4. 기타자료

学校法人 松栄女子学院:

http://www.cc.aoyama.ac.jp/~soperprog/pdf/SoueiJoshigakuin.pdf

同志社女子大学: https://www.dwc.doshisha.ac.jp/about/history/chronology

빅카인즈: https://www.bigkinds.or.kr/

한국학 자료 통합 플랫폼: https://kdp.aks.ac.kr/

<Abstract>

# The Legacy of the Abolition Movement of Brothels

-The Splendid Hell (1951) and Stars' Home (1953) by Kim Malbong

### Bae, Sangmi

This paper analyzes two novels by Kim Malbong, The Splendid Hell (Hwaryŏhan Chiok) and Stars' Home (Pyŏl lŭl ŭi Kohyang), through "symptomatic reading," a mode conceptualized by Louis Althusser to elucidate the omissions, discrepancies, and contradictions in a given text. Through this methodology, I examine how the two novels reveal the limitations of the movement to abolish brothels and the demand for socialist ideas in South Korean society. Toward this end, I discuss the author's contradictory opinions regarding this movement by analyzing her essays and articles. Although she was the movement's leading activist, these materials reveal that she was hesitant to show explicitly what the purpose of the movement was. One of the novels, The Splendid Hell, whose objective is to promote the abolition movement, shows the lack of sex workers' voices and the strong stigma against them. The other novel, Stars' Home, which was created during the Korean War as a postscript story for the movement, tells the secondary story of a sex worker, Düksun, and her daughter Yŏngsun, who advocate for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and support the importance of solidarity based on socialist ideas in the interstices behind the more conventional main narrative of Ch'angyŏl, a Christian anti-communist patriot. In this research, I reveal

the hidden rebellious messages which do not accord with the hegemonic discourse on literary texts which were published under the Cold War surveillance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by the US military and the authoritative government in South Korea.

Key words: Kim Malbong, The Abolition Movement of Brothels, *The Splendid Hell, Stars' Home*, Symptomatic Reading, Stigma, Socialism, Postscript Story

투고 일: 2023년 11월 17일 심사 일: 2023년 12월 11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11일 수정마감일: 2023년 12월 22일